

# 해커 선언문 by 로이드

오늘 또 한명이 잡혔다. 신문마다 난리다.  
“컴퓨터 범죄 사건으로 10대 체포”,  
“은행 컴퓨터 조작으로 해커체포”...

빌어먹을 어린 놈들, 그 놈들은 다 똑같아.

하지만 당신은 싸구려 심리학이든 1950년대식 과학이든 무엇으로라도  
그들을 이해해보려고 한 적이 있는가?  
왜 그들이 그런 장난을 하는지,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나는 해커다. 나의 세계로 오라.  
나의 세계는 학교에서 시작한다.  
나는 대부분의 학우들보다 똑똑하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우리를 지겹게 한다.

빌어먹을 낙제생들, 그 놈들은 다 똑같아.

중고등학교에서 분수식 계산법을 수십 번도 더 들었다.  
이미 다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다.  
“아니요, 선생님. 계산 과정은 보여드릴 수 없어요. 암산으로 했거든요.”

빌어먹을 어린 놈들, 아마 베꼈을거야. 그 놈들은 다 똑같아.

오늘 뭔가를 발견했다. 바로 컴퓨터다.  
잠깐, 이거 멋진데.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잖아.  
만약 그것이 실수를 한다면, 내가 그것을 망쳤기 때문이지.  
그것이 나를 싫어해서도, 나 때문에 겁을 먹어서도,  
나를 똑똑하기만 한 바보로 생각해서도 아냐.

빌어먹을 어린 놈들, 그놈들이 하는 짓이라곤 게임밖에 없어. 그 놈들은 다 똑같아.

그리고 일이 터졌다. 세계로 나가는 문이 열린 것이다.  
헤로인이 중독자의 정맥 속을 흐르듯이  
그렇게 전화선을 타고 흘렀다.  
전자 신호가 보내지고, 지겨운 일상으로부터의 탈출구를 찾아낸 것이다.  
입장권을 찾아냈다.

“바로 이거야. 내가 원하는 세상은 바로 여기야...”  
나는 이곳의 모든 사람을 안다.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도,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 만날 일이 없을 사람도...

나는 모두를 알고 있다.

빌어먹을 어린 놈들, 전화선으로 또 장난질하고 있잖아, 그 놈들은 모두 다 똑같아.

당신들은 우리가 모두 똑같은 바보라고 단정지어 버린다.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고 싶어 할 때조차 학교에서 주는 건 유아식밖에 없었다.

당신들은 고기를 씹으면서, 우리에게는 어른들이 씹다 만 맛없고 무리건조한 음식만 주었다.

우리는 새디스트에게 지배받고, 냉담하게 무시되었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다.

여긴 이제 우리의 세상이다. 전자와 스위치로 이루어진 세상, 아름다운 신호의 세상.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서비스를 공짜로 사용했을 뿐이다.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껏해야 돈에 환장한 놈들의 짓거리,

그것도 아니면 지저분한 싸구려 장난감일 뿐이다.

우리는 탐색했다. 그리고 당신은 우리를 범죄자라 부른다.

우리는 지식을 찾아헤맸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를 범죄자라 부른다.

우리는 피부색도, 국적도, 종교적 편견도 없는데...

하지만 당신은 우리를 범죄자라 부른다.

당신들은 원자폭탄을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고, 살인을 하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범죄자라고 한다.

그렇다. 나는 범죄자다.

나의 죄목은 호기심.

나의 죄목은 인간을 외양이 아니라 말과 생각으로 판단하려 한 것.

나의 죄목은 당신보다 똑똑하다는 것.

아마 당신은 나를 영원히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해커다. 이것은 나의 강령이다.

당신은 나 한사람을 멈추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어쨌거나 우리는 다 똑같기 때문이다.